

다카라코리아 2003년도 INNO-BIZ기업 선정

2003년 9월 2일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 (INNO-BIZ)에 당사가 "2003년도 상반기 INNO-BIZ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러한 축보로, 당사는 21세기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성장 세력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03년도 상반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Innovation Business) 육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INNO-BIZ는 중소기업청의 핵심 정책으로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투자펀드 조성 및 경영컨설팅과 해외기술 인증획득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해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프로젝트이다.

일본 최초의 4년제 바이오 대학인 나가하마바이오 대학 유학생 모집

2003년 4월 1일.

일본 최초의 4년제 바이오 대학인 나가하마바이오대학이 문을 열었다.

나가하마바이오대학은 관서문리학회와 당사의 모기업인 다카라 바이오쥬가 공동으로 10년 전 교토에 설립한 바이오전문학교 「바이오칼리지교토」의 교육 실적·노하우를 기반으로 관서문리 학원이 설립모체가 되어 시가현, 나가하마시, 다카라바이오쥬의 지원으로 산관학협동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사는 나가하마바이오대학의 자매기관으로서 보다 많은 학생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카라바이오(주)와 협력하여 각종 장학금, 기숙사 제공 및 아르바이트 알선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4년 한국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 중에 있으니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1. 모집 학부·학과 및 모집 인원

바이오사이언스학부 바이오사이언스학과 60명

2. 출원자격

한국에서 12년의 정규 학교교육을 수료하고 (수료 예정자 포함) 또한 해당 교육기관이 소재하는 국가의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18세 이상인 자

3. 전형 방법

「일본유학시험」또는「일본어능력시험」의 성적 결과와 본교에서 실시하는 면접·서류 심사를 종합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

4. 출원 기간

2004년 1월 5일(월)~9일(금)

2003년 추계학술대회 참가

풍요로운 가을에 생명공학연구자들의 연구를 발표하는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당사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미생물학회연합,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의 3개 추계학술대회 전시회에 참가하여 당사 주력 제품 및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고객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당사에 대한 관심도 및 연구지원서비스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상담으로 고객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추계학술대회 기간에 발맞춰 새롭게 출시한 Perfect PreMix Ver.2를 중심으로 Real Time PCR Smart Cycler, Gradient PCR Dice, Custom Service (Sequencing 서비스, DNA chip 제작 및 해석, Peptide 합성, Antibody 제작 등), 산화관련제품, 온라인 마케팅, 유전자검사센터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한국유전자검사센터에서 제공하는 GMO 관련 유전자 검사 서비스 및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와 세계 최초의 바이오대학인 일본의 나가하마 대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현장 이벤트로는 Bio21 회원에게 sequencing 무료 쿠폰을 사전에 발송하여 sequencing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일정

- 1)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10월 9일~10월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 TAKARA SYMPOSIUM 개최 (10월 9일 오후 3시)
- 2) 한국미생물학회연합 (10월 24일~10월 25일), 연세대, 과학관
- 3)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10월 29일~10월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8th TaKaRa International Symposium 개최

올해로 8번째 맞이하는 TaKaRa International Symposium이 10월 9일 오후 3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의 공식일정으로 펼쳐졌다. 생명과학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로 기획되어 학계의 최신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대학원생을 비롯한 젊은 과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획하였다.



이번 symposium은 「Trend in Life Science & Biotechnology」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1.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유전자 기능 연구
유명희/ 과학기술부 21세기프론티어사업, 프로테오믹스이용 기술개발사업단
2. High Output Drug Discovery Based on Structural Proteomics and ChemoProteomics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주)
3. Baculovirus 발현 벡터의 연구동향과 응용
우수동/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다카라코리아연구 개발센터
4. 단백질 침투 기술: 신경질환에 대한 단백질 치료법으로의 응용
최수영/ 한림대학교 생명과학부 유전공학과
5. 제 4의 물결- 바이오시대
유옥준/ KAIST 생명과학과

이번 TaKaRa International Symposium은 생명공학 최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400여명의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참관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내년에도 더욱 좋은 기획으로 국내의 생명과학분야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난 10월 29일~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과 후원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2003년 3/4분기 영업회의 개최

지난 10월 9일(목), 당사회의실에서 각 지역대표와 직원분들을 모시고 3/4분기 영업회의를 진행하였다.

단순한 보고 중심의 회의가 아닌 각 대리점의 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각 대리점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3/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각 대리점의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TaKaRa Bio 해외영업본부의 Mr.Ueda 씨가 TaKaRa 기기 소개와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여 참가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영업회의는 Takara Korea 및 지역대리점의 발전을 위한 회의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을맞이 다카라코리아 3색 이벤트

추계학회 시즌을 맞아 당사에서 가을맞이 3색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1. 펩타이드 & 항체 제작 가격인하 (2003년 8월 1일~2004년 2월 28일)
2. Perfect PreMix Ver.2 50% Sale (2003년 10월 9일~2003년 11월 28일)
3. TaKaRa Taq 시리즈 30% Sale (2003년 10월 9일~2003년 11월 28일)

일본에서도 인정받은 최고의 노하우, 다양한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품격 펩타이드와 항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loading dye와 침강제가 포함되어 한층 더 upgrade 된 Perfect PreMix Ver.2 및 명품의 TaKaRa Taq 시리즈를 획기적인 할인가격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당사의 고급 제품과 서비스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다카라 제품 사용자들을 위해 보다 우수한 제품 공급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다.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주) 창립 8주년 기념행사

지속적인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 온 당사는 2003년 11월 1일 창사 8주년을 맞이하였다. 올해는 한국유전자검사센터의 합병과 Perfect PreMix의 신제품 개발 및 생산 등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한해였다.

당사는 8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연수원에서 10월 31일~11월 1일 양일간 “다카라코리아 창사 8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직활성화를 위한 팀워크 강화 훈련”을 주제로 하여 사전에 각 조별로 분임 토의 후 발표회의와 팀워크 강화를 위한 훈련 캠프를 하였다. 모든 행사들이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발판으로 하나가 되어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단합의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급하게만 달려온 8년간 지나온 길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유전자검사센터 DNA 보관 및 유전자검사사업 개시

다카라코리아 서비스, 보관한 DNA로 신원확인

다카라코리아와 한국유전자검사센터는 신원확인부터 질병진단과 예방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DNA 보관 및 유전자검사사업을 본격화한다.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 이제현 대표는 “한국유전자검사센터와 공동으로 기존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GMO) 유전자검사 사업을 일반인을 위한 DNA보관과 검사 서비스 사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DNA보관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DNA 샘플을 분리·정제해 영하 70도의 냉동고에 보관한 후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등 필요로 하는 시기에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련 건강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검사항목도 생명 과학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추가된다.

이 대표는 “일단 100가지 이상의 유용 유전자 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카라 측은 이 사업을 통해 내년 2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매일경제]

유전자 맡기면 질병정보 제공 ·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

유전자를 DNA 은행에 맡기면 암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질병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은 풀무원과의 합작회사인 한국유전자검사센터를 통해 DNA 보관 및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보관한 뒤 필요한 시기에 유전자 개인식별 검사, 질병관련 유전자검사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검사결과에 따른 상담도 제공한다.

이제현 다카라코리아 대표는 “우선 1백가지 이상의 유전자 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다카라코리아 DNA 보관사업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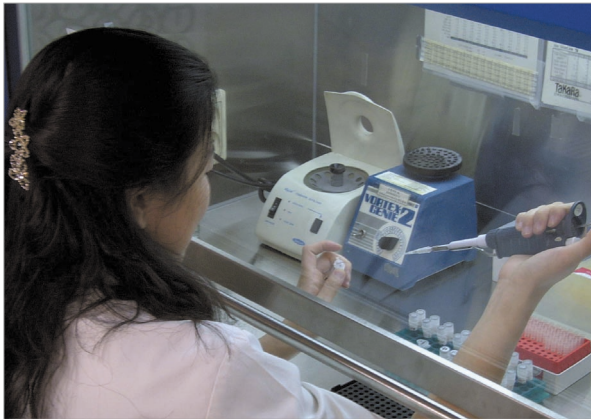
탯줄혈액(제대혈)에 이어 DNA 보관 및 검사 서비스 사업이 선을 보였다.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대표 이제현)은 산하 한국유전자검사 센터를 통해 개인별 DNA 보관 및 검사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혈액에서 DNA 샘플을 분리·정제해 서로 다른 2곳 이상의 보관시설(영하 70℃)에 15~수십년간 보관, 유아기·청소년기·장년기 등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질병관련 유전자검사 등을 실시해 맞춤형 상담(홈페이지, e-메일 등) 등을 제공한다.

암·고혈압·당뇨병·치매 등과 같은 질병 관련 유전자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 적절한 식이·운동요법, 생활습관과 치료법을 알려주고 사고·미아발생시 가족·신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장은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검사항목을 계속 추가, 가까운 시일 안에 100가지 이상의 유용유전자 진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DNA 보관 서비스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신생아 고객유치를 위해 몇몇 대형 병원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임상검사센터, 건강식품회사, 유아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종합 헬스케어의 일환으로 유전자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개인 유전자 은행에 맡기세요”

암 성인병 등 맞춤형치료법 제시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 한국유전자검사센터는 최근 ‘DNA(유전자)은행’을 열고 개인유전자 보관·검사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카라코리아 한국유전자검사센터

앞으로는 구강세포, 모근세포 등에서 유전자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개인별 ‘맞춤 예방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 한국유전자검사센터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식품(GMO)에 대한 유전자검사에서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이달부터 일반인을 위한 DNA(유전자) 보관 및 검사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측은 유전자를 보관·운영하는 ‘DNA은행’을 통해 개인별 유전적 특성에 맞는 특성유전자 예측검사서비스, 각종 질병 위험성 예측에 의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제시 등 총체적인 맞춤의료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DNA은행은 각 개인의 혈액이나 구강세포, 모근세포 등으로부터 고순도의 DNA를 추출해, 영하 7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보관하는 것으로, 불의사고로 인한 미아발생시 신분확인이나 암 고혈압 당뇨병 치매와 같은 질병에 대해 유전자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유전자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DNA은행에 보관된 유전자는 최소 15년에서 수십년간 보관이 가능하며 최대 100회이상, 전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등 언제든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유전자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다카라코리아 이제현 대표는 “신생아에 초점을 맞춘 사업추진을 위해 대형병원과의 협력을 추진 중이며 임상검사센터, 건강식품회사 등과 연계에 의한 종합 헬스케어의 일환으로 유전자검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100가지 이상의 유용유전자 진단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0억원, 수년내 100억원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학신문]